

# 영농폐기물 처리반 운영

### 순창군, 11개 읍면 4명씩 배치 7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군이 농촌 들녘 미관을 저해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폐기물 수거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월 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 2억 7천여만원을 확보하고 각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 사업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

이고 있다. 특히 이번 처리반 운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외에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며, 불법 쓰레기 소각금지 행태 감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지도도 겸할 예정이다.

처리반은 각 읍면별로 4명, 분청 1명 등 총 45명으로 운영되며, 각 읍면은 이달내 인원을 선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7월

까지로 각 읍면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처리반 인원 선발은 각 읍면별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처리반 운영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 무분별하게 버려진 장기 방치 영농폐기물에 한해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생활쓰레기 수거는 이번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19일 '제2회 시민사랑방' 개최

남원시는 시민들과의 눈높이 소통행정을 위해 진행했다.

오는 19일 제2회 시민사랑방을 공설시장 주차장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민사랑방은 바쁜 일상으로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해주는 '민원마켓'과 주

제를 정하고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 이환주 시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정책대화'이다.

또한 정책대화는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함께 만드는 교육1번지, 남원!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환주 시장이 시민 100여명과 함께 시 교육발전 토론회를 계획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 결의대회에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랑방을 통해 소통을 했었다"며 "그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었다"며 시민사랑방을 통해 격의 없이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제1회 시민사랑방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친환경인증·GAP 교육 실시

임실군은 지난 12일 친환경연구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인증과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품을 이용한 천연염색 만들기와 자담(자연에 담은 사람들) 천연농약 사용에 대한 농가 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올해 본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관한 당부

사항 및 영농일지 작성, 농약안전사용요령 등 GAP인증을 위한 기준 및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준비중인 농가 35명으로 구성된 친환경연구회는 분기별로 모여 회원 각자의 친환경농법 실천사례 발표와 친환경 약제 공동 제조로 인근농가에 보급하며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다.

홍성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농



산물의 고품질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확보도 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생태계 보호위해

### 오늘부터 외래어종 수매

남원시는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 교란 주범인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본격 수매한다.

올해에 3.2톤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스 등 외래어종은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어종의 일부부터 성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로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골칫덩어리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했다. 15일부터 매주 월요일(10시~12시)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들이 포획한 외래어종 3.2톤을 올해 수매한다.

가격은 냉동하지 않은 어류는 kg당 5000원, 냉동은 kg당 3000원을 차등 지급한다.

##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호응

남원시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가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사매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 한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반을 편성해 찾아가는 한방 이동 진료를 실시했다.

진맥과 상담을 통해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시술과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숙 건강생활과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한방 이동진료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임실 치즈 개척자' 지정환 신부 별세



'임실 치즈의 개척자' 지정환(별기예명 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가 지난 13일 숙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8세.

별기에 태생인 고인은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이후 가난한 임실지역에 협동정신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산양 보급과 산양유, 치즈 개발을

이끌어냈다.

또 임실을 섬기기에 한국 최초의 치즈공장을 설립하고 카망베르 치즈와 모차렐라 치즈를 생산했으며 전국 유일의 치즈 농협을 출범시켰다.

한편, 천주교 전주교구는 16일 오전 10시 전주 중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진행했다. 빈소는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천주교 전주 중앙성당에 마련됐다. 장지는 전주시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로 결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민의 날, 19일 일품공원서 개최

순창군이 오는 19일 일품공원 야외무대에서 제57회 순창군민의 날을 개최한다.

격년제로 열리는 순창군민의 날은 오전에 주부싸이를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주부싸이를 대회는 19일 오전 11시 일품공원에 집결해 순창읍사무소를 출발, 반원적인 삼진강향가오토캠핑장을 거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왕복 15km코스로 진행된다.

순화팀과 남계팀으로 나눈 각 '고'는 35m 길이로 300여명의 주민이 어깨에 메고 1.5km의 시가지를 행진한다.

행진할 때 순창문화원 취타대와 농악단이 선두에 서서 흥을 돋아 군민의 날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일품공원에 도착한 각 '고'는 줄페

장의 지휘로 양편의 고리를 연결해서 통나무를 꿰고 줄다리에 들어간다. 줄다리가 걸과로 압축이 이기면 흥년이 들고 수풀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고 전해지지만 흥겨운 분위기속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줄다리가 끝나면 기념식을 통해 군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고, 이후 군민의 날 기념 'JT' 뮤직페스타'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녹화방송에는 유명가수 김용익을 비롯해 남궁옥분, 오로라, 진해성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한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군민의 날이 격년제로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흥겨운 군민의 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수도권 거주자 귀농귀촌 적극 유치

임실군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 나섰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4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임실군의 농촌생활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 '발효소스토굴'

### 전북투어패스로 무료입장 가능

순창군이 최근 발효소스토굴을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로 가입해 관광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전라북도 주요 유료관광지, 맛집, 숙박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여행할 수 있다.

자유이용권형 관광 패스카드다. 현재 순창군은 4곳의 자유이용시설과 50곳의 특별할인가맹점이 있어 카드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된 발효소스토굴은 순창읍 민속마을단지 내 위치해 있다.

다양한 전시실과 2종의 VR체험, 미디어아트, 트리아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구축한 FPS VR체험 콘텐츠로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 카드 한장으로 발효소스토굴을 비롯해 영화관, 강천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한 혜택이 있으니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경찰, 숙박업소에

###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배부

남원경찰서는 최근 연예인 불법촬영 유포 및 숙박업소 불법촬영 생중계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를 제작해 숙박업소에 배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원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3대)로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업주에게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권고하였으나, 탐지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남원경찰은 합동점검뿐 아니라 업주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자 불법촬영 간이점검 카드와 전단지 제작 배부하게 되었다.

사용방법은 휴대폰 뒷면에 간이점검카드를 놓았다.

고, 플래시를 켜 상태로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의심 장소를 확인하면 되며,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최홍범 남원경찰서장은 "남원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